

도시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한반도 분단

장세훈,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알트, 2017)에 대한 서평

김백영(광운대)

1. 머리말

연구자층이 매우 얇고 학문적 축적이 극히 부진한 도시사회학계에 일획을 그을만한 대저, 600여 페이지의 두툼한 볼륨에 저자가 지난 20여년간 경주해온 논문 한편한편을 모아담아 재구성하여 20세기 후반 분단/냉전체제하 남북한의 도시화 양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 비교, 성찰한 원대한 모자이크화.

머리말을 제외한 본문은 5부로 구성. 1부는 냉전도시화, 분단도시화에 대한 개념적 설명, 2부는 한국전쟁이 전후 남북한 도시(서울, 평양)에 미친 영향, 3부는 남한 도시의 냉전도시화 양상 검토, 4부는 북한 도시의 냉전도시화 양상 검토, 5부는 탈냉전 시대 한국 도시의 몇 가지 특징적 변화 양상에 대한 편린적 고찰.

불과 반세기만에 농촌:도시 인구비율이 9:1에서 1:9로 역전된 초고속 압축도시화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임에도, 도시사회학적 연구 자체가 극히 일천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 도시화 과정의 터무니없이 문제적인 현실을 입증. 저자는 80년대 도시빈민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한국도시화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도시사회학/지역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지속, 축적해옴. 그 성과를 북한도시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결합하여 ‘냉전도시화’ ‘분단도시화’라는 개념적 우산 아래에 하나의 저서로 묶어낸 것이 이 작품.

한눈에 드러나는 이 책의 주된 성과와 한계를 들여보자면, 하나하나가 탄탄한 문제의식의 산물인 빼어난 독창성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논문들로 구성된 각 챕터들, 그것을 하나로 꿰어내는 저자의 오랜 연구력이 묻어나는 통찰력, 남북한의 도시화를 ‘분단/냉전’ 개념하에 하나의 해석틀 속에 버려내는 쉽지 않은 도전적 시도... 와 같은 점들이 이 책의 미덕.

반면, 빈약한 총론과 험겁고 파편적인 구성. 즉 기발표된 논문들을 엮어내어 책 전체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졌다기보다는 다소 부정합적이고, 책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논의들이 개별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냉전도시화’ ‘분단도시화’라는 개념이 충분히 구체적인 이론화나 경험적 논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채 단지 시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보임. 이하에서 그 장단 양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주요 성과와 기여: 도시사회학의 문제의식으로 ‘남북한 분단’에 대해 사유하다

이 책에 엮인 논문들은 실로 열악한 한국 도시사회학계의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새로운 지적 결실을 향해 전진해온 한 성실한 도시사회학자의 20여년에 걸친 선구적인 학문적 도정의 기록.

1) 각론적 논의가 전개되는 개별 챕터의 도입부에서 총론적 논의가 반복되거나, 개별 챕터의 마무리가 규범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음. 개별 글 자체의 완결성을 높일지는 모르겠으나, 책 전체로 보면 가독성과 완성도를 저하시킴.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주된 학문적 기여를 꼽아보자면,

1) 북한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a. 북한 주요 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청진, 신의주, 혜산). [9장]

b. 서울과 평양의 도시화 양상 비교. [2,3장]

c.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화(도시사회 변화)의 추이 분석. [10,11장]

d. 체제전환기 사회주의 도시화의 대안적 노선: 국가주도형 봉쇄도시 건설 노선 vs 시장중심적 자유방임도시 건설 노선 [11장]

2) 한국전쟁이 남북한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3장]

3) 발전주의 국가의 강압적 도시화: 국가-도시빈민 관계 변천사(1960-80년대) [8장]

4) 남한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냉전도시화’의 특성

a. 20세기 후반 남한의 전반적인 도시화 추이 [4장]

b. 분단과 수도권 일극집중 [5장]

5) 몇 가지 새로운 이론적 문제제기

a. 영국, 일본 사례와의 그린벨트 국제비교(‘환경벨트’ 아닌 ‘국방벨트’) [6장]²⁾

b. 광장과 공원의 공간사회학 [7장]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업적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문제점, 새로운 쟁점과 과제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그 주된 내용들을 간략히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주요 쟁점과 과제: ‘냉전/분단도시화’의 본격적 이론화를 위한 필수요건들, 그리고...

1) ‘냉전도시화, 분단도시화’의 이론적 완성을 위해 고려할 점들

이 책의 중핵적인 이론적 논의, 개념을 제안하고 시론적 논의를 전개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연구 사적 기여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점을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 ‘냉전도시화’와 구별되는 ‘분단도시화’의 특성이 무엇인가?³⁾

b. ‘냉전도시화, 분단도시화’가 ‘병영도시화, 군사도시화’와 어떤 차별성을 띠는가?

c.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논의는 대부분 서울/평양을 대상으로, 그것도 주로 경관이나 도시계획, 도시구조에만 주목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도시화를 비교하고 있어 논리적 비약이나 스케일상의 혼동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음. 전국적 차원에서의 국토계획, 도시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동 양상과 연관지어 논의를 확대할 필요성.⁴⁾

d. ‘발전주의국가의 강압적 도시화’와의 이론적 관계 설정 문제.

e. 북한도시론/사회주의도시론에서 보완할 지점들.⁵⁾

2) 도시화의 시공간적 차원에 대한 메타적 성찰의 필요성

이 책은 저자 나름대로 한국 도시화의 전체적 양상을 그려내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음. 그 골

2) 남북분단과 군사적 긴장을 논의로 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그린벨트의 ‘예외적’ 사례.

3) 1960-80년대 남북한 도시화를 자본주의적/사회주의적 도시화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유효/적절한가?

4) 가령 이 책의 저자가 서울대 SSK연구단과 공동으로 수행해온 지방공업단지 개발문제(<산업경관의 탄생>, 2014)도 ‘분단도시화’의 이론화에서 중핵적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 듯.

5) 주로 2차 문헌자료와 탈북자 증언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 저자의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듯.

조는 도시인구 변동추이 분석. 여기서 한 가지 결여의 징후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 연구서임에도 지도/도면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는 단순히 책의 대중적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표면상의 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심대한 이론적 발전 가능성에 장애를 초래. 가령 3)의 서울의 초고속-초거대도시화와 도시민민의 반복적인 축출 과정은 도면을 통해 공간적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실증적 이해를 가능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분석과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넓혀주지 않을까.

이러한 공간적 분석의 결여는 시간 변수에 대한 고려의 부족과도 연관. 초고속 도시화라는 점. 이는 단지 시가지 팽창에 따른 공간 변화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4)-a, b.의 논의에서 인구의 양적 속성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도 연관. 도시민의 세대 변수, 그에 따른 도시사회의 질적 속성의 변동에 대한 고려 필요. 도시공간에 대한 감수성, 건축, 생활양식, 도시문화 등 도시사회의 질적 내용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담겨질 때 입체적 이론화가 가능해질 듯.

3) 역사적 요인('식민지 유산')에 대한 검토 필요성

본격적인 한반도 근대도시화의 첫 단추가 35년(이상의) 일제 식민통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식민화/탈식민화가 분단과 전쟁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분단도시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 단적인 예로서 이 책에서는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 '잔재'인가 '유산'인가? '잔재'라는 표현에 대한 개념적 성찰은 부족한 듯. 일제에 의한 식민지 도시화가 남긴 '유산'의 다차원성과 복합성(물리적/공간적 차원, 제도적/관행적 차원, 인적 차원)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일제의 남선/북선에 대한 식민화 정책의 차이(특히 1930년대 이후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의해 초래된 차이), 한국전쟁이 남북한 도시에 초래한 파괴 양상의 차이, 남북한 정권의 식민지 유제 청산방식의 차이에 대한 비교사적 성찰의 필요성.

4) 제기하고 있으나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흥미로운 이론적 발견들

a. 정치적 민주화(지방자치제 시행)가 한국의 도시화에 초래한 역설적 결과에 대한 논의. '강남 불패'의 신화를 공유하는 '부동산계급'이 지배하는 '부동산공화국'의 민주주의 현상.

b. 광장과 공원론: 205쪽 표. 다용도 개방공간 vs 지정용도 폐쇄공간. 여의도 5.16 광장의 변화 사례 연구. '국가'광장에서 '시민'공원으로. 한국의 광장/공원문화에 대한 일반론, 특히 서울에 존재하는 복수의 광장과 공원/녹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론적 논의 확장 가능. '국방벨트'로서 그린벨트와도 연관.⁶⁾

4. 맺음말

이 대저를 읽고 그 성과와 한계를 음미하면서 떠오른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군분투(孤軍奮鬪)'와 '고장난명(孤掌難鳴)'. 삼중적 의미에서. 첫째는 도시사회학의 고립 혹은 한국사회학계 내에서의 소외와 주변화, 둘째는 도시'사회(과)학'과 다른 광범위한 도시 관련 연구/실행 분야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 셋째는 '분단/냉전'에 의해 초래된 학계와 현실(북한 관련 정보를 둘러싼 '철의 장막'을 포함한) 간의 괴리와 불통. 이 저서는 이러한 역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토착 사회학자의 지적 분투의 발자취로서 한국사회학사에 기록될 것.

6) 반환되는 미군기지 공간활용 문제, 향후 휴전선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문제 등과도 연관.